닮지난 2002년 6월 수원 장안공원에서 열린 월드컵 기념 공개행사때의 공연

옛 선비 기개…'글 읽는 소리'로 환생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찾아서 <30>

제32호 송서·율창 이 윤 형옹

뻦이윤형 옹이 2003년에 펴낸 '송서·율창 입문' 개정증보판

뻦보존회원들과의 연습 장면

흔히 딱딱하고 재미없는 소리를 들어 '국어책 읽는다'고 한다.

그러면 책을 읽을 때도 분위기가 있다는 말인가. 똑같은 글이라도 읽는 사람의 감정과 높낮이, 길고 짧은 소리에 곡조를 붙이면 다양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글자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소리와 연계시켜 지역마다 독특한 소리문화를 창조했다.

한자권에 속한 우리나라는 한글 창제 이전에는 뜻글자인 한자만을 사용했지만 우리만의 독특한 낭송법을 발달시켰다.

지금도 그렇지만 글은 지식인의 상징이고 권위였다. 특히 한자를 학습한 사람은 최고의 지성을 갖춘 학자이며, 선비란 칭호를 받았다.

그러나 한자를 가르쳤던 우리나라 고유의 학습기관인 '서당'이 사라지면서 글읽는 풍경과 소리는 텔레비전의 사극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 됐다.

옛 선비들은 사서삼경이나 시조에 음률을 넣어 고고하면서도 유장한 글귀를 낭송했다.

오언(五言)이나 칠언율시(七言律詩)를 노래조로 읊는 것이 '율창'(律唱)이며, 한시를 읊는다 하여 시창(詩唱)이라고도 했다.

또 산문으로 된 한문을 노래조로 읊는 것을 송서(誦書)라 불렀으며, 한시나 한문을 소리내어 읽는 것을 '독서성'(讀書聲)이라 했다.

'송서' 산문을…'율창' 오언·칠언율시를 노래조로 읊는 것

문자에 가락을 실어 쉽게 익히려는 선조들의 지혜 엿보여

특히 시창은 과거시험장에서 알성과(謁聖科)에 급제한 장원의 시문을 시험감독관이 만인 앞에 고성으로 읊어 발표했으며, 시흥을 돋워 높은 음성으로 장대하며 엄숙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옛부터 율창과 송서는 노래를 잘 부르는 가객이 부르고, 독서성은 한문을 배운 학자와 학생이 평소 글 읽을 때의 소리로 전통의 고품격 생활문화였다.

현재 가창되는 한시는 대개 유교문화가 부흥했던 조선시대에 창작됐으며 권근의 '영남루시'나 심영경의 '경포대 죽서루시', 신광수의 '관선융마'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조선시대 멋드러진 선비문화의 맥을 잇고 있는 경기도무형문화재 32호 송서·율창 보유자 이윤형 옹(동두천시 생연2동)은 81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깊은 소리와 웅장함에 숙연함까지 느껴진다.

이 옹은 "옛날 학자라면 누구나 서당에서 한문 공부를 하며 읊었던 소리"라며 "일제시대를 거치며 서당이 사라지고 서양식 교육기관이 들어서면서 옛 풍취도 함께 사라졌다"고 말했다.

간단한 시범을 주문하자 이 옹과 율창·송서 보존회 한병옥 회장 그리고 한 여성 보존회원은 '전적벽부'(前赤壁賦)의 한 대목을 들려줬다.

가지런히 가부좌를 틀고 곧곧이 세운 허리에 힘을 준 모습에서 선비의 당당한 기개를 풍기며, 유장한 가락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 옹은 흥이 낫는지 박자에 맞춰 무릎을 치는 장면도 수 차례 선보였다.

임술지추칠월(壬戌之秋七月) 기망(旣望)에 소자여객(蘇子與客)으로

범주유어적벽지하(泛舟遊於赤壁之下) 할 새 청풍(淸風)은 서래(徐來)하고

수파(水波)는 불흥(不興)이라 (전적벽부 일부)

임술년 원풍 5년 가을 7월 16일 밤에 나 소자는 손님과 함께 배를 띄워 적벽강 언덕 아래서 놀았다. 서늘한 바람은 천천히 불어오니 수면의 물결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어 시경(詩經) 읽는 법을 담은 '시전관저장'(詩傳關雎章) 대목은 느리면서 깊이 있게 뽑아냈으며, 대표적인 율창으로 조선초기 명문장가였던 권근이 지은 '영남루시(嶺南樓詩)'는 풍부한 감정이 가득 배어 있었다.

특히 영남루시 첫 문장인 '십재(十載)를 경영(經營) 옥수연(屋數椽)/금강(錦江) 지상(之上)이요 월봉선(月峰前)' 대목에서는 송서와 다른 맛이 느껴진다.

첫 단어인 '십재'에 강한 악센트를 넣어 빠른 듯 느린 템포와 클라이막스에서 꺾는 기교가 인상적이었다.

"율창은 시를 지은 지은이의 시심을 그대로 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옹은 "뜻을 알고 시를 읊는 것이 지은이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송서와 율창이 판소리 등 다른 소리와 다른 점은 내뱉는 소리가 아닌 위에서 나는 '토성'(土聲)을 사용해 근엄하면서도 깊이 있는 소리를 내며, 율창에는 음의 고저와 길이를 나타내는 평·상·거·입의 음표를 달아 누구나 동일한 음을 낼 수 있다.

이 옹의 낭송은 마치 시의 풍경이 그림으로 그려지듯 애잔하면서도 정제된 멋이 일품이다.

7살때부터 서당에서 천자문과 계몽편, 동몽선습, 통감, 맹자 등을 배웠던 이윤형 옹은 14살때 성균관 시험감독관이었던 백남열(당시 75세)을 독생선생으로 3년 동안 사사했다.

1962년부터 지금까지 시원한약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 옹은 1967년 당시 양주군 일대 시조인과 함께 '이담시우회'를 결성하고 1975년 한국국악협회 시조분과위원회 경기북부 지부장을 맡아 2000년까지 봉사했다.

이 옹은 지금도 한약방 한쪽 공간에 연습실을 마련해 보존회원 등에게 소리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4세때 백남열 선생에 사사…81세에도 웅장한 소리 여전

"연천군 전곡읍 석상서당에 후학 위한 교육기관 설립 바람"

한약방 수입은 고스란히 한시 활성화에 들어갔다. 한약방은 1960년대 장터가 열리면 한시 꽤나 읊는 선비들이 지난 장날 가져갔던 화제에 시를 지어 재주를 뽐내곤 했던 장소기도 했다.

이후 이 옹은 1981년부터 1988년까지 국악협회 동두천시지부장을 맡았으며, 그 공로로 한국국악협회 국악공로상(1984)과 동두천시 문화상(쏷쏷쏷)을 받았고 한국한시협회 한시백일장 참방상(1996)의 수상 경력도 갖고 있다.

이어 2000년도에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32호 송서·율창 보유자로 지정됐다.

시조창과 가사보다도 보급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한시를 보급하고자 이 옹은 양주고등학교 학생 시조반 강습을 비롯 경기북부 노인대학, 동두천종합고등학교 국악반 강습에 총력을 기울였다.

"우리 문화를 알고자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강의를 나간다"는 이 옹은 "다만 학생들이 한시 읊는 것을 배워도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윤형 옹의 한시 사랑은 한시를 읊을 때 표정에서 알 수 있다. 지긋이 감은 두 눈에 옛 선비의 기개와 멋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

이 옹은 어릴때부터 글공부했던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소재 석상서당에 정식 서당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이다.

현재 석상서당은 20여명이 넓직히 앉을 수 있는 너럭바위이며, 지난해 4월 이 옹이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을 기념해 3천여만원을 들여 '석상서당 유적비'를 건립했다.

이 옹은 석상서당 인근 부지에 한문과 예의범절을 가르칠 수 있는 서당을 운영하고 싶다고 한다.

"이곳에서 한문이나 국악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거주하며 우리 문화학습에 매진하거나, 어린 학생들의 인격소양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연섭·이형복기자 bok@kgib.co.kr